2일 Market Index
코스피 6562.72 (-273.08)
코스닥 803.98 (-17.27)
금리(국고채 3년) 3.930 (+0.052)
환율(원·달러) 1366.05 (-4.35)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9월 3일 목요일

대한민국 바른배달 땡겨요

‘치솟는 금리’ 빚 내서 빚 갚는 기업

20대 기업집단 회사채 20.8조 발행
만기도래액 32.9조, 12조 빚 갚아
SK·롯데 등 14곳 회사채 순상환
순발행 삼성·한화·한진·CJ 4곳 뿐

국내 대기업들마저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신규 투자, 기존 부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사채를 찍어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과 글로벌 정세 불안에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길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 업계와 하나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20대 기업집단이 발행한 회사채(금융계열사·영풍 제외)는 20조789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만기도래액이 32조8823억원으로 12조 930억원이 빚 갚는데 들어갔다.

그룹별로는 SK(-4조4508억원)의 순상환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롯데(-1조 3926억원), LG(-1조3711억원), HD현대(-1조1080억원) 등 18곳 중 14곳이 회사채 순상환을 기록했다.

반면 회사채를 순발행한 곳은 삼성·한화·한진·CJ 네 곳뿐이었다. 삼성은 1조 6450억원(만기 1조1550억원)을 발행해 4900억원 순발행을 기록했다. 한화는 1조 979억원의 만기도래에 대응해 2조970억원을 발행하면서 1180억원을 조달했다. 한진과 CJ도 각각 2885억원, 2972억원의 순발행했다.

조달 비용 상승 탓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 차를 뜻하는 크레디트 스프레드(AA-3년물 기준)는 이날 기준 0.670%포인트로, 지난해 말(0.4~0.5%포인트) 대비 크게 벌어졌다. 스프레드 확대는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커졌다는 뜻으로, 기업의 상환 위험을 더 크게 본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사는 대가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 결과다.

조달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신용이 좋은 기업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지난 7월 발행된 일반 회사채는 86.3%가 AA등급 이상 우량 물이었다. 이처럼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장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투자자를 찾기 어렵다.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 은행대출이나 기업어음, 단기사채 등 만기가 짧고 비용이 큰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가 여는 혁신의 물류·모빌리티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AX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AI는 물류와 모빌리티의 생산성, 효율성, 운영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는 물류·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AX는 비용, 효율, 탄소중립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는 허들도 뛰어넘어야합니다.

AI→빅데이터→이동의 최적화→에너지 절감→탄소감축→지속가능한 미래 물류·모빌리티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기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기위해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1번째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 ◆ 행 사 명 :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 제 :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
- ◆ 일 시 : 2026년 9월16일(수) 14~17시(내빈 티타임 13시30분~14시)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 ◆ 등 록 :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문 의 :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구윤철 부총리, 美 재무장관 면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오른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스콧 베선트(왼쪽 세 번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면담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日 기업과 반도체협력 검토 “전력·용수 풍부한 곳 고려”

최태원 SK그룹 회장
키옥시아와 공동생산 가능성 언급
연합 성사시 합산점유율 36% 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일본 키옥시아와의 반도체 공동생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을 새로운 생산거점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키옥시아의 미래 전략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언제든 파트너가 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키옥시아와의 협력 방안으로 공동 생산과 연구개발(R&D), 공급망 공유 등을 거론했다. 키옥시아가 미국 샌디스크와 합작을 통해 제품을 공동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동 공장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본 내 생산기지 검토 배경에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용 메모리반도체 공급이 수요보다 20~30% 부족하다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 기반도 강점으로 꼽았다. 일본에는 반도체 제조장비와 소재·부품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데다 제조업을 중시하는 산업 환경도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일본 전역을 살펴보고 있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곳이라면 어디든 고려하고 있다"며 "리스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도 일본은 매우 매력적인 후보지"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복수 지방자치단체도 SK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미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 유치 제안을 받고 있다"며 "연내 구체적인 투자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만약 양사의 연합이 성사될 경우 글로벌 낸드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25%), SK하이닉스(22%), 키옥시아(14%) 순이다.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합산 점유율은 36%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한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에도 54조원(약 39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알테오젠, 노바티스와 4.4조 ‘빅 딜’… 올해 네 번째

‘ALT-B4’ 기반 피하주사 의약품
개발·상업화 옵션·라이선스 계약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에 독자 개발한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을 이전하며 올해만 네 번째 빅딜을 성공시켰다.

알테오젠은 노바티스와 ‘ALT-B4’ 기반 피하주사 제형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옵션·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노바티스는 알테오젠의 ALT-B4를 적용해 복수 바이오의약품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옵션 형태로 확보했다.

계약 규모는 최대 32억 2300만 달러(약 4조 4165억원)에 달한다. 노바티스가 모든 옵션을 행사하고 단계별 개발·상업화 마일스톤을 달성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받게 되며 상업화 이후 발생 및 매출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받는다.

ALT-B4는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인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구현한 물질이다. 세포외기질의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해 함께 투여되는 치료제의 체내 확산과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알테오젠은 올해 들어서만 총 4건의 ALT-B4 라이선스 계약을 성사시키며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노바티스가 계약에 앞서 다양한 치료 영역(모달리티)에 ALT-B4를 적용하는 평가를 사전 수행했다"며 "이번 파트너십은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력과 사업성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메트로 한줄뉴스

▲여성계에 진보정당까지 반발 심화…용혜인, 첫 출근 /사진 뉴시스
▲"의대 탈락, 서부권 민심 달래야" 민형배 시장, 통합TF 구성
▲이 대통령, 오룩도 인근 예인선 전복사고에 "가용 자원 총동원해 인명 구조"
▲정부, 3일 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국무총리 발표
▲홍준표 "함량미달 비례대표 의원을 장관으로… 사람이 그리 없나"
▲개혁신당 천하람, 부산서 ‘잘못된 공천’ 사죄